

송창근의 생애와 신학사상(I)

그의 삶을 중심으로

만우 송창근은 1898년 함북 웅상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교인이었지만 맏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만우 송창근(宋昌根)은 1898년 10월 5일 함경북도 경흥군(慶興郡) 웅기면(雄基面)에 위치하고 있는 웅상동(雄尙洞)에서 농부인 부친 송시택 씨와 모친 신봉암 씨 사이의 5자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곳은 웅기항에서 동북쪽으로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70여호의 농가가 웅기종기 모여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동해 바다를 앞가슴에 품고 있는 농촌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서 송창근의 본가는 중농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본관은 은진 송씨이다. 그러므로 그의 집안은 이곳에 이주해온 이주민인데, 언제 이곳으로 이주해왔는지는 알 수 없다.

이곳 사람들은 웅상동을 몽새 마을이라고도 불렀다. 이 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항구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일찍 개화되었으며, 기독교의 전래도 빠른 편이었다. 그러므로 이 마을의 주민 거의는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마을의 유일한 몽새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산실 역할을 훌륭히 하며, 날로 복음 전파에 열성을 쏟고 있었다. 그는 어릴 때 입버릇처럼 이담에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말하곤 했다고 하는데, 아마 당시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김관식, 채필근 목사들의 영향과 차보은, 배탁복 전도사들의 감화를 받은 듯하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교인이기는 하지만, 맏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 이름자나 쓸 줄 알면 그것으로 배움에 만족하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도록 하려는 생각이 그때 부친의 의도였다. 그러나 총명했던 어린 조카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숙부 송시명 씨의 권유로 아버지는 창근을 만주 간도의 명동(明東)중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가 간도로 떠나기 2년 전인 1913년 그는 여섯살이나 연상인 처녀 김재원과 결혼하였고, 그래서 그의 출가는 사실 어려운 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사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세가 날로 암울해가던 사회적 분위기도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1905년 이른바 일본에 의해 강요된 을사조약 후, 조선이 국제정치의 각축장이 되면서 조선정국이 정치·외교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던 즈음, 한국침략의 원흉 이등박문(伊藤博文)이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의병장 안중근(安重根) 의사에 의해 사살되고, 그 이듬해인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으로 나라와 국권을 상실한 조선의 곳곳은 뒤숭숭하고 민심이 들끓던 때였다.

설상가상으로 왜경은 그 해 12월 27일 '사내(寺內)총독암살미수사건'(소위 105인 사건)을 조작한 후, 그 가담자들을 검거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많은 애국지사들을 잡아들였고 이들을에게 혹독한 고문을 하며 헌병경찰 지배체제를

한승홍/연세대 신학과와 같은 대학의 연합신학대학원(Th. M.) 및 원혜대, 위임간대를 거쳐 아칸대에서 철학박사(Ph. D.) 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장신대 교수로 있다.

그는 이동휘
휘하에서
민족의식을
심화했다.
큰 꿈을 가지고
상경하여
피어선
신학교에 입학,
공부했지만
3·1운동
가담으로
6개월 간
옥고를
치렀다.

더욱 강화해나갔다. 이 사건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의 싹이 움트기 전에 그 기운을 미리 도려내려는, 처음부터 각본대로 연출된 자작극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제의 계산된 음모였음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많은 민족지도자들이 희생된 후였다.

조국애에 고취되었던 어린시절

웅기면 웅상동은 지리적으로 연해주와 북만주로 건너가는 길목이었기에 송창근은 어릴 때부터 이곳을 거쳐 만주로 망명길에 오른 우국지사들을 많이 대하게 되었으며, 이들로부터 조국의 운명과 국사에 대하여 열변을 들으며, 조국애에 가슴이 뛰기도 했다고 한다. 한일합방과 사내 총독 암살미수사건을 계기로 애국지사들은 구국의 웅지를 품고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만주로, 중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독립운동이 사실상 국내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은 해외에 집결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규합하고, 일본군대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대한독립군을 만들려 했다.

송창근은 만주 간도의 명동중학교에 잠시 적을 두었다가 곧 독립운동가인 이동휘(李東輝) 선생이 독립군 양성을 위해 세운 소영자의 광서중학교로 가서 이동휘 휘하에서 배우며, 민족의식을 더욱 심화했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동휘가 시베리아로 건너가게 되어 어린 소년 창근은 두 만장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7개월 간 만주에 머물렀지만, 이 기간은 그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특히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기의 그에게, 이동휘와 같은 거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휘하에서 숙식하며 조국애를 고취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도 값진 경험이었다.

고향에 돌아온 그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란 농사일뿐이었다. 그러나 다른 세상을 보았고, 좀더 웅대한 이상을 꿈꾸어보았던 그가 자신의 장래를 아버지와 같은 인생으로 만족할 수는 도저히 없었다. 밭일을 하며 아버지로부터 소채적으로 매를 맞을 때면 이곳을 떠나서 그가 바라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했다. “다시 고향을 떠나자. 목사가 되자는 희망을 위해서라면 서울로 가야겠다.”² 그러나 그가 그의 계획을 실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우선 그가 상경하여 하숙하며 신학공부를 해야 할 재정적 여건이 그의 집안 형편상 어려웠고, 다른 한가지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반대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목사가 되려는 그의 앞길에 던져진 숙명! 그가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이었다. 그는 홀로 되어 외롭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숙모가 길쌈해서 무명팔아 모아둔 돈을 숙모의 장농에서 훔쳐 갖고 서울행 기차를 탔다.³

신학의 길

서울에는 배재고등보통학교, 경성고등보통학교, 경신학교, 김성수가 세운 중앙중학교 등을 비롯하여 현대식 교육을 하는 학교가 여럿 있었으나 그는 학력 미달로 이런 정규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친지의 도움으로 피어선 성경학교에 찾아가 입학을 허락받고, 그곳에서 3년과정의 수업을 5년만에 마치게 되었다. 그가 피어선 성경학교에 입학한 때는 1915년 봄이었으나, 그는 1920년에야 비로소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서양식 교과내용에 대한 기본실력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을 빨리 소화·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게다가 1919년 한 해 동안은 3·1운동의 여파로 거의 학업을 할 수 없었다. 송창근은 3·1 운동에 가담하여 6개월 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고 한다.⁴

**1919년
송창근은
출감하여
김재준과
만나게 되었다.
이들의 만남은
30년 간이나
선·후배 사이로,
동료로서
자유주의
신학풍토를
형성·발전시켜
나갔다.**

1919년은 국사의 한 역사점이기도 하지만, 한국 신학계의 한 역사점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의미심장한 해였다. 송창근은 출감한 후 고향에 머물며 쉬고 있던 중, 그 해 12월 성탄절을 즈음하여 웅기교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장공 김재준은 웅기 금융조합(요즘의 농협과 같은 은행) 서기로 근무하고 있었다. 장공은 그때만 해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며, 사상적으로도 계발되지 않았던, 오직 말은 일에 충실한 직장인일 뿐이었다.⁵ 그러나 어느날 송창근은 김재준의 하숙집 방을 두드렸고, 이렇게 시작된 이들의 만남은 그후 30년 간이나 선후배사이로, 때로는 동료로서 관계를 이어왔으며, 한국신학의 자유주의 신학풍토를 형성·발전시키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특히 조선신학교(현. 한국신학대학)의 개교를 비롯하여 한국 기독교의 또하나의 가능성을 여는 일에 일익을 담당한 것은 이들의 만남이 한국신학계와 기독교계에 남긴 또하나의 유산으로 기록될 일이다.

1921년 만우는 피어선 성경학교를 졸업하면서 남대문장로교회 조사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교회 조사의 직이 모험을 좋아하고, 활달하며, 학문의 맛을 어느 정도 본 그의 체질에 맞을 리 없었다. 그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양대학 문화학과에 입학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김재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다감하고 정다운 미남이었지만 뜻은 구름처럼 높았다. 그러나 그때에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 일인(日人)의 제압 아래 있어서 어디에나 끼어들 틈이 없었다. 일인 이상으로 일인에 충성해야 겨우 미관랄 직이라도 얻을 수 있었고 그 수도 극히 제한

된 것이었다. 그런 중에서도 기독교계만은 개방되어 있었고 한국 사람만의 사회였다. 만우의 꿈도 그 길로 피어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보육 아래 있었다. 간단한 정통주의 신조를 주입시키고 자유비판을 금지하고 교직자의 지식 정도를 제한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동정신적 식민정책이랄까 ‘우민 정책’이랄까—하여튼 극단의 보수주의, 고정주의로 일관했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신학교육은 선교사들이 전적으로 장악한 평양신학교 하나 밖에 없었던 그게 그 꼴이었으니 의기와 꿈으로 피어오르는 젊은 지성인들의 기미에 맞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만우는 일본으로 뛰었다.

일본에는 이 교과 저 교과와 신학교들이 많았다. 만우는 그 신학교들을 거의 다 순례했다. 원하기만 하면 입학은 자유니까 이 신학교에서 몇 달, 저 신학교에서 몇 주일 떠돌이같이 다녔다. 어디는 케케묵고 어디는 제제하고—그러다가 동경의 동양대학교의 문화학과에 들어갔다. 그때 한국문화 전공인 야나기소에쓰 교수가 그 과의 주임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맘에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하기방학에 귀국해 있는 동안 동경대지진이 났었고 다시 동경 간 때는 청산학원 신학부에 옮겨 거기에 안정했고 1926년엔가 졸업했다.”⁶

우리는 여기에서 김재준의 증언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또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첫째, 그는 학력미달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어 피어선 성경학교를 졸업했으나, 그 자신은 성경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만주에서

1923년
청산학원
신학부에
입학하여
신학과정을
마쳤고
'26년 도미,
유학길에
올랐다.
신학연구에
대한 그의
야망의
도전이었다.

이동휘 등을 비롯해서 여러 독립투사들과 만났고 그래서 이미 그는 목사로서의 일보다 좀더 사회활동적인 그 어떤 일을 설계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그가 평양신학교가 선교사들의 장악 아래 '극단의 보수주의, 고정주의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평양신학교로 가야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주장은 김재준의 해석일 수는 있으나 정확한 사실일 가능성은 희박할 뿐이다.

왜냐하면 송창근이 피어선 성경학교에 다닐 당시 그곳은 비정규 잡종학교 정도의 극히 보잘 것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신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수주의 신학이니 자유주의 신학이니 하는 신학논쟁의 추세나 동향 등을 갖고 학생들의 신앙을 좌나 우로 정형하려는 의도로 교육을 하던 곳도 아니므로, 그가 이곳을 졸업하고 남대문 장로교회 조사로 취임했다는 것은 그 스스로는 그 당시 별로 신학적 깊이를 갖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둘째, 김재준은 당시의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의 보육 아래 있었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평양신학교마저 '간단한 정통주의 신조를 주입시키고 자유비판을 금지하고 교직자의 지식 정도를 제한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등 정신적 식민정책'을 폈기 때문에, '의기와 꿈으로 피어오르는 젊은 지성인' 송창근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의 한국교회, 특히 평양신학교의 신학성에 대한 김재준의 성향분석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신학공부를 계속하고는 싶었으나 평양신학교의 보수주의 성향 때문에 만우가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면, 그는 도일 후 곧바로 자유주의 성향의 신학교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랬다면 그의 도일은 좀더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하

기 위한 대망의 일본행이라는 주장의 뒷받침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일 후 그가 입학한 곳은 신학교가 아닌 문화학과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그가 처음부터 신학에 뜻을 품고 있지는 않았으리라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어쨌든 그는 1923년 청산학원 신학부에 입학하여 1926년 졸업할 때까지 정규 신학과정을 마쳤고, 이로써 신학의 길에 그의 생애를 걸었던 것이다. 가출하여 만주를 누비고 다녔고, 악덕 중국인 고리대금업자의 집에 침입하여 빚 대신 팔려온 여인을 도망시키고, 홀로 된 숙모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훔쳐 서울로 도망하고, 피어선 성경학교에서는 생활비로 송금되어온 돈을 친구가 슬쩍 가로챘다고 하여 그 친구를 지도축 대어섯개가 박살나도록 패어 돈을 받아내고, 결국 그 친구를 퇴학시키도록 했던, 활달하고 어떤 면에서는 거칠고 포악한 그가 언제 어떤 동기로 신학하기로 결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⁷

신학을 위한 도미유학

1926년 송창근은 청산학원을 졸업하면서 도미유학의 길에 올랐다. 신학을 좀더 깊이 연구하고, 서양 문물을 직접 배우려는 그의 야망의 도전이었다. 그런데 그의 유학비용을 이용도 목사가 집을 팔아 마련해주었다. 자유주의 신학도와 신비주의 부흥사의 이러한 인간애적 관계는 그후 이용도의 신비주의에 대한 송창근의 비판으로 좀 소원해지기는 했으나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막상 길이 열리고 미국을 가려하니 여비가 없었다. 그때, 뒤에 교계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눈물과 기도의 설교자로 크게 주목을 받다가 예수교 장로회 등에

프린스턴에는
한경직이
있었고
김재준도
동경에서부터
합류했다.
이 세사람은
곧 가까워졌고
그후 한국
기독교계와
신학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서 이단(異端) 논의로 파문을 남긴 뒤에 젊은 나이로 병사한 이용도(李容道) 목사가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아서 송 박사의 도미 여비로 내어주었다는 감동스러운 일화가 있다. 이용도 목사가 판 그 집은 본시 하도 궁상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보다 못해 감리교 선교사가 사주었던 집이라는 것이다.”

192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신학교에 입학하여 고학하며 1년을 보내고, 1927년 9월 프린스턴(Princeton) 신학교로 옮겨갔다.

프린스턴에는 한경직이 먼저 와서 신학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1년 뒤에는 김재준도 동경에서 신학을 마치고 도미하여 합류했다. 한경직은 이들과 초면이었지만 이 세 사람은 곧 가까워졌다. 이들은 그후 한국기독교계와 신학계에 지대한 족적을 남겼다.

송창근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한 후, 1928년 9월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웨스턴(Western) 신학교로 옮겨가서 학업을 계속했으며, 그 다음 해 5월에 신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 해 9월 김재준도 웨스턴 신학교로 왔다. 이들은 기숙사 한방에서 1년 동안 같이 지내며 이국에서의 외로움을 서로 달래며 학문에 전력했다. 1930년 5월 송창근은 웨스턴 신학교로부터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경영하는 콜로라도주의 덴버(Denver) 대학교의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그 다음 해인 1931년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어려웠던 조국에서의 목회

1931년 그는 신학박사가 되어 귀국길에 올랐다. 그의 최대의 희망은 일제치하의 조국 땅에서 목회를 하며, 신학교육에 헌신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길을 가로막은 것은 우선 목

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길을 위해서 다시 신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것이었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도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하여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교단신학교를 졸업해야 했다.

“아무리 외국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따왔어도 당시의 국내 장로교회 풍토는 선교사 경영의 평양신학 출신이 아닌 사람은 불신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송 박사도 다시 평양신학교 3학년에 편입 1년 간 수학을 하고 고시를 치룬 뒤에 강도사 시취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목사가 될 수 있었다.”

귀국 후 그가 처음으로 맡은 일은 평양송실중학교 성경강사 자리였다. 그리고 동시에 평양신학교에서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는 귀국 첫 해를 선생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학생으로서 바쁘게 보내며, 내일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다. 1932년, 귀국 1년 후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아 목회에 첫발을 힘차게 내딛었다.

“혁신적인 기개에 차있고 꿈 많고 다정다감하던 송 박사가 산정현교회의 목회에서 어느 만큼 성공적이었는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교회를 젊게 하고 청년과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변모케 하는 데에는 성공했던 듯하다.”

역사적인 산정현교회를 그가 담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목회 초년생인 송창근 개인에게는 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교회청년 지도

평양의
산정현교회가
신학박사인
그에게
기대를 걸고
당회장으로
모셨으나
4년만에
청년학생들만
들끓는
교회가 되어
사임하게
되었다.

자는 필지언정 성공적인 목자로서는 그의 이름을 날리지 못했다. 들말 같은 그에게 양 같은 온유함과 은혜로운 목사의 기능을 발휘하며 목양하라는 것 자체는 그의 삶을 포기하라는 요구나 다름없었다.

결국 그는 한국교회가 기대하고, 특히 장로교회가 많은 인내를 갖고 대기만성의 결과를 고대하며 지켜보았으나 목회 4년 만에 산정현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의 신앙은 그의 목양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역시 그의 신앙과 신학을 굴절하면서까지 평양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물론 그가 그의 목회 4년 동안 그의 설교나 글들을 통하여 기독교 사상을 발표할 때 때로는 매우 온건 보수적인 입장을 역설하곤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그의 신학을 포기하고 보수주의로 선회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평양의 장대현교회와 더불어 한국기독교 신앙의 모체나 다름없던 산정현교회가 신학박사인 목사라는 그 어떤 기대 때문에 그를 당회장으로 모셨으나 4년만에 기성교인들은 줄어들고 청년학생들만 들끓는 교회로 만들어놓았을 때, 그에게 되돌아오는 질책 그리고 그 스스로 느끼게 된 책임감과 일반목회에의 부족함 등, 이런 제요인들이 그가 평양을 떠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는 목회보다는 교육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김재준은 만우의 사임 이유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물론 장공의 진술은 자신의 주관적 해석을 깔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옳다고 보기는 여러 점에서 문제있음을 미리 알고 그의 설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평양에서 안정할 것 같던 무렵에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다. 목사 이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외없이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만우(송박사)는 강경하게 거부했다.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전국 교역자들의 보조가 맞지 않아서 일은 난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산정현교회를 사임하고 부산에 가서 호주 선교부의 후원을 얻어 빈민사업을 시작했다.”⁷²

김재준은 여기에서 송창근의 교회 사임 이유를 신사참배 문제로 설명하며, 그의 반일성을 강조하려 의도하고 있지만, 한국교회사의 실증사적 증언은 그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고 있다. 1935년 11월 평안남도 지사(安武直夫)는 송실전문학교 교장 매쿰(G.S. McCune)과 송의여교 교장 스누크(V.L. Snook)에게 학교 대표자로서 신사에 참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1936년 1월 18일과 20일 이들을 출국시켰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교회 탄압을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부터였다.⁷³ 특히 장로교는 1938년 9월 제 27회 총회 때 신참결의를 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교역자들은 그후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 이로 인해 많은 순교자들도 생겨났다.

송창근이 산정현교회를 사임한 때가 1936년 이른 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신사참배 문제가 그가 교회를 사임해야 할 절대 이유는 아닌 듯하다. 송창근은 그 이후로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황국신민의 적성과 황민교육의 보급·계몽을 위해—불가피한 상황에서였겠지만—전국을 순회하며 시국강연 행각을 벌였다. 그의 이러한 행위들은 김재준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분명한 사실은 그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교회를 사임한 것이 아니고, 성빈학사(聖貧學舍)를 운영하기 위한 것인 듯하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는 매우 열심히 일했다. 그는 1937년 4월 1일 매켄지(J.N. McKenzie)에 의해 발행된 「성빈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문을
닫아 버리자
김대현 장로의
사재로
새로운 신학교인
조선신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곳에 깊이
관여했으나
표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聖貧, Holy Poverty)」이란 잡지의 주간으로
도 일했다.¹⁴ 숭실중학교 교사 시절의 제자였
던 김정준을 불러 그에게 「성빈」의 편집 책임
을 맡겨야 할 정도로 만우의 부산생활은 바빴
다.¹⁵

그러나 그는 그가 그렇게도 의욕을 갖고 헌
신·봉사하던 성빈학사를 2년도 못되어 떠나야
했다.

“송 박사가 부산에서 성빈학사를 경영하다
가 서울서 내려온 고등계 형사들에게 끌려
올라가 일본 경찰에 수감된 것은 1937년 10
월 28일이었다. 미국에서 귀국길에 샌프란
시스코에 들렀다가 흥사단(興土團)에 강입
했던 일이 화근이 된 것이었다. 소위 수양동
우회 사건이다.”¹⁶

이렇게 「만우 송창근」은 기록하고 있다. 그
러나 그가 수양동우회 사건에 얼마나 깊이 관
여했는지에 대하여는 더이상의 설명이 없어 그
관계는 더욱 연구·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신학교의 출범

1939년 가석방으로 출옥한 그는 성빈학사와
의 관련도 끊어진 상태였기에 더이상 할 일이
없었다.

“그때 서울에서 송 박사를 필요로 하는 일거
리가 생겼다. 선교사들이 일본인들의 구박
을 못견디어 거의 다 돌아가버리고 장로회
의 유일한 공인 신학교인 평양신학교가 신
사참배문제로 더불어 문을 닫아버린지도 오
래여서 신학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
는 공론이 서울의 중진 목사들간에 오갔다.”
¹⁷

“그런데 숭동교회를 담임해 있던 이재형 목

사가 교회장으로 중의 김대현(金大鉉)이란 이
에게 이런 뜻을 전하므로 김 장로는 그때 돈
으로 사재 2십 5만원을 내어놓겠다고 언약
했다.”¹⁸

“그래서 교계인사 백여 명이 흑석동 한강가
에 있는 ‘한강장’ 요릿집에서 찬화회를 열고
‘조선신학교’ 설립기성회를 만들었다”¹⁹

이렇게 조선신학교는 출범했다. 신학교 설
립기성회가 교회나 공회당과 같은 공공건물에
서가 아니고, 술집에서 결성됐다는 것도 당시
의 장로교 신앙정서에 비추어보면 기행처럼 보
였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평양신학교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자진폐교한, 그리고 이러한
뼈아픈 결행은 기독교 신앙을 오히려 지키겠다
는 일본제국에 대한 강한 선언이며 동시에 우
리 자신의 순교적 각오를 행동으로 보여준 항
일이며 저항이었다. 그러나 그 1년도 채 안된
때에 대교단에 교역자 양성기관이 없어 목사수
급에 차질이 있다는 구실로 황도신학교를 만든
것에 장로교 총회는 분노했던 것이다.

조선신학원이 총회에 제출한 정관에 의할 것
같으면 “충량유위(忠良有爲)한 황국(皇國)의
기독교 교역자를 양성한다”는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개교이념을 갖고 있었다.²⁰ 이것은 조선
신학원이 처음부터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기독
교의 목사양성 기관으로 출발하지 않고, 일본
혁신신학교의 틀을 갖고 황민화에 앞장설 황국
의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여 서양기독교의 해
질을 황민화,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신도
화까지도 하겠다는 저의를 품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총회로부터 조선신학원
의 총회 직영이 거부되자, 조선신학원은 경기
도지사의 학원인가를 받아 윤인구 씨를 초대원
장으로 앉히고 개교했다.

송창근의 전기에 따르면 조선신학원의 설립

1940년 김천
황금동교회
부임, 목회중
해방을 맞아
1946년
조선신학교
학장에
취임하였지만
그가 남긴
부정적인
역사로
도미하게
되었다.

에 그가 깊이 관여했으나, 표면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송 박사가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보석중이었으니만치 그러한 공적 과업을 맡아서 안된다는 일본인들의 간섭”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그는 경상북도 축탁으로 기용될 정도로 일본 총독부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

“신학교는 결국 윤인구 씨가 원장으로 송동교회를 빌어 학원인가로 개교했고 송 박사는 먼저 대구로 내려갔다. 대구에는 막역한 친구였던 유재기(劉載奇)목사가 제일교회를 시무하고 있었다. 이때에 잠시 송 박사가 유 목사와 함께 경상북도 축탁(囑託)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협을 하므로써 굴욕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²⁾

불명예스러운 도미행각

1940년 그는 김천 황금동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일제치하의 목회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그는 일본 관리들의 복장을 하고 다녔다. 그리고 그가 맡은 시찰경 내 각 교회를 순방하곤 했다. 대동아전쟁 말엽 어느 여름, 그는 낙동강가의 시골 교회를 불시에 방문했다. 당시 청년 전도사 김삼수(金三守)는 예상밖의 귀한 손님을 대하며 그의 행색에 놀라움과 동시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아무리 전사라고 하지만 청년 앞에 다가온 송창근의 행색은 “머리를 반반히 깎고 소위 국민복-일제시대 그들의 전시(戰時)복장-을 입고 전투모에 각반까지 두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때 그는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의 총무국장의 직책까지도 갖고 있었다.

“해방을 얼마 앞둔 1945년 5월께 일본에 있

다 나온 전인선(全仁善) 목사의 주동으로 소위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해괴한 조직운동이 생겨서 조선의 각 기독교단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고 일본적인 정신 기조 위에서 재출발해본다는 사건이 있었다. 그때 그나마 총리(總理)를 하려고 교계 거물급 인사들이 각축을 하다가 평양 부근 시골에 낙향해 있던 김관식 목사가 엉뚱하게 추대되고 누구의 발의였는지 송 박사가 총무국장으로 뽑혔다. 웅당 송 박사는 그 직책은 사양해야 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자세한 경위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 직책을 수락하고 김천을 중심으로 지방을 다닌 일이 있었다.”³⁾

1945년 8월 15일, 그는 김천에서 해방을 맞았다. 그는 서울에 올라와 조선신학원의 조직을 재장비하는 일에 김재준과 함께 힘을 기울였다. 공산당에 쫓겨 월남한 한경직 목사도 그들과 힘을 합쳤다.

1946년 3월 송창근은 조선신학교 학장에 취임하였다.⁴⁾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벅찼지만 그의 앞길은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았다. 그는 신학사상 논쟁에, 신학교 분규에, 그리고 교단 분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한국 장로교사에 부정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의 생애에서 강한 충격을 준 사건은 그가 반민특위에 의해 반민족자로 재판받게 된 상황에서 한국을 탈출해야 하는 본의 아닌 외유였다.⁵⁾

“그 무렵에 또 한가지 불쾌한 시비가 있었다. 그것은 송 박사의 일제 말엽 행상에 대한 구설이었다. 그 전해인 1948년에 남한만 의선거가 시행되고 대한민국이 탄생된 뒤에 반민족자 조사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다음 해에 들어서면서 육당(六堂)이요, 춘원(春

1950년,
귀국한
송창근은
남북되었다.
그의 삶은
한국신학
사상사적으로
분석·평가되어
신학과 사상을
이해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園)이요, 박흥식(朴興植)이요 하는 저명인
사들이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경성
북도 촉탁을 지낸 것과 일본사람들을 배경
으로하여 만들어졌던 교단 총무를 맡았던
일로 하여 송 박사에게도 그 불티가 날아오
리라는 말을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다.”⁹⁶
“그러나 열녀(烈女)의 한번 실행(失行)이랄
가, 일본 국민복에 각반을 차고 다니면서 시
국강연을 한 일이 있기는 있었으니 마주 싸
울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⁹⁷

1949년 2월, 쌀쌀한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냉기를 받으며 그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의 출국 후 곧이어 한국 기독교계의 친일·부
역 목사들이 반민특위에 의해 줄줄이 체포·수
감되었다. 양주삼, 정춘수, 정인과 등등 일제
치하에서 조선교회를 이끌어갔던 시대의 인물
들, 강요된 환경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가는 곳마다 천황에 대한 적성을 열변
했고, 황도정신의 선양에 앞장을 섰으며, 조선
교회들을 황도문화의 연성소로 만드는 데 지도
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민족의 심판대에 서
야했던 것이다. 송창근은 바로 이들과 ‘일본기
독교 조선교단’ 활동을 함께 해왔으나 미국행
출국은 그에게 쓴잔의 기회를 피하게 해주었
다. 1950년 그가 귀국했을 때는 반민특위가 해
체되었으므로 그는 더이상 신변의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1950년 8월 23일 오전 7시, 만우 송창근은
남북되었다. 그가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한
국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이 땅에 남긴 것은 한
국신학사상사적으로 정확히—특히 실증사적
으로—분석·평가되어 그의 신학과 사상을 올
바로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
다. 그는 한국의 한 시대를 민족의 고통과 고난
의 역경 속에서 살았던, 바로 그 시대의 지도자

였으며, 동시에 그 시대의 희생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재
속되어야 하며, 감상적 서술에 의한 신화적 전
술보다는 과학적 명증에 의한 실증적 진술을
통해 만우 송창근의 삶과 사상이 정확히 규명
되어야 할 것이다. ☪

주(註)

1. 만우 송창근선생기념사업회 편, 「만우 송창근」, (서울 : 선경도서출판사, 1978), p.17.
2. Ibid., p.23.
3. Ibid.
4. Ibid., p.25.
5. 김재준, “잊을 수 없는 만우”, ibid., p. 321.
6. Ibid., pp.323~24.
7. Ibid., pp.20~23; 김 재준, 「만우 회상기」, (서울 : 한신대 출판부, 1985), pp.18, 21.
8. 「만우 송창근」, pp.30~31.
9. Ibid., p.39.
10. Ibid., p.41.
11. Ibid., pp.45~46.
12. 김재준, 「제 3일」 제44호, p.48. 「만우 송창근」, p.50에서 재인용.
1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p.426.
14.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p.415.
15. 「만우 송창근」, p.53.
16. Ibid., p.57.
17. Ibid., p.60.
18. Ibid.
19. Ibid.
20. “조선야소교장로회 조선신학원일람”, 「조선예수교로회총회 제29회 회의록」, p.43.
21. 「만우 송창근」, p.61.
22. Ibid., p.62; 김 삼수, “진실을 위해 사신 분”, ibid., p.399.
23. Ibid., p.74.
24. Ibid., p.75.
25. Ibid., p.296.
26. Ibid., p.109.
27. Ibid.